

21세기 한국 소설의 라틴아메리카 소설 경향*

- 황석영, 임철우, 김연수, 박형서 소설을 중심으로

함 정 임
(동아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 라틴아메리카적 소설 경향을 황석영, 임철우, 김연수, 박형서의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 문학 및 세계 문학의 흐름 속에서 이들 소설이 갖는 의미와 전망을 조명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취한다. 하나는 한국의 리얼리즘 소설의 대표 작가 황석영의 장편 『손님』과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샤머니즘적 체질¹⁾을 소설적 특성으로 담지해온 작가 임철우의 장편 『백년 여관』이 라틴 아메리카 콜롬비아 출신의 가브리엘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05년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중남미협력포럼과 2008년 7월 12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한국문예창작학회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김윤식은 한국 근대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샤머니즘적 체질’을 언급한다. 대표적으로 김동리의 소설들, 「무녀도」와 임철우의 소설 「봄날», 「아버지의 땅」 등을 꼽는다. 김윤식 정호웅 공저, 『개정 증보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참고.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장편 『백년의 고독』²⁾의 매직 리얼리즘 세계와 어떻게 만나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황석영과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경우는 「두 본질의 만남」, 임철우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경우는 「두 ‘백 년’의 만남」이라는 관점으로 논지를 개진할 것이다. 두 번째는 2000년대 독창적인 소설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젊은 작가들-김연수, 박형서-의 소설에 걸쳐 나타나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기법에 대한 고찰이다. 김연수와 보르헤스의 경우 「원본 찾기로서의 소설 쓰기」로, 박형서와 보르헤스의 경우 「픽션을 둘러싼 소설 쓰기」라는 관점으로 논지를 펼칠 것이다. 이 두 가지 연구를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문학, 특히 소설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자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검토한 결과 황석영, 임철우, 이승우, 조성기 등 중견 작가에게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술적 리얼리즘의 차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김연수, 천명관, 박형서, 조현 등 젊은 작가들에게는 보르헤스의 환상적인 기법이 차용되고 있음을 확인해왔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전자의 경우 몇몇 선행 연구가 간헐적으로나마 이루어진 상태이나³⁾, 후자의 경우 본격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전자와 후자를 아우르는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어느 시기이나 외국 소설들과의 조우(遭遇)와 공명(共鳴), 겹침(overlapping)과 펼침(spreading) 현상은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유독 2000년대 발표된 한국 소설에 두드러지게 겹쳐서 드러나는 라틴아메리카 소설 경향의 실체를 추적하고, 연원을 밝힘으로써 현대 한국 소설의 형상(aspects)을 한국 문학은 물론 세계 문학의 흐름 속에 조명하고자 한다.

-
- 2) 본고에는 『백년의 고독』(조구호 옮김, 민음사, 2000)과 『백년 동안의 고독』(안정효 옮김, 문학사상사, 1997)이 혼합되어 표기되어 있다. 본고는 조구호가 우리말로 옮긴 『백년의 고독』을 저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참고 자료에 표기된 것은 출판본에 따라 그대로 적용했다.
- 3) 김용호, 「한국 문학 속의 마술적 사실주의」, *춘계 라틴아메리카 학회 문학분과 「특집: 마술적 사실주의」*, 2001, pp. 83-111. ; 김형중, 「한국형 마콘도들에 관한 몇 가지 단상」, 『변장한 유토피아』, 랜덤하우스중앙, 2006. 참조.

II. 본론

한국의 대표적 리얼리스트 황석영과 라틴아메리카의 마술적 이야기꾼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필두로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작가들, 예를 들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환상성과 총체성이 한국 소설, 특히 리얼리즘 소설에 어떤 양상으로 스며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계보를 이을 만큼 지속적이냐, 아니면 하나의 참조, 일시적 현상이냐의 질문에 봉착하면 영향론의 의미는 미미해진다. 또한 여기에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환상성과 마술적 리얼리즘을 이해하는 데에는 또 다른 참조항이 필요한데, 보르헤스의 ‘환상’이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술적 리얼리즘’의 근원을 찾아가는 데에는 하나 아닌 여러 갈래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이란 과거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여러 국가들의 문학을 총칭하는 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롬비아, 요사의 페루, 보르헤스의 아르헨티나, 아옌데와 루이스 세폴베다의 칠레,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멕시코 등 작가 개인의 현실과 전설, 그리고 정서의 편차만큼이나 다양한 욕망이 하나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21세기 인터넷 매체 환경은 국가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이전 시대 세계 문학의 주류를 형성하던 서구 문학의 유포와 담론의 경계를 허물어버린다. 2000년을 전후로 우리 소설에서 라틴 아메리카 소설 경향이 하나의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무경계의 동시대적 작가의 고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황석영의 『손님』, 그리고 임철우의 소설(『백년 여관』, 『칠선녀주』, 『나비아』), 이만교의 소설(『머꼬네 집에 놀러 올래』), 천명관의 소설(『고래』, 『유쾌한 하녀 마리사』), 박형서의 소설(『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자정의 픽션』), 그리고 조현의 소설(『종이 냐킨에 대한 우아한 철학 — 냐킨 혹은 T. S 엘리엇의 <황무지> 중 ‘IV. Death by Water’에 대한 한 해석』,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의 역사』) 등은 내용적인 측면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들을 참고 또는 차용하고 있지만, 이들 작품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르시아 마르케스적인, 또는 보르헤스적인, 또는 다성적인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특질을 자기화했느냐, 그래서 자기의 계보를 확장했느냐, 아니면 자기의 계보를 결정지었느냐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필요하고도 생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황석영, 임철우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만남

1) 황석영-가르시아 마르케스, 두 본질의 만남

한국 리얼리즘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 황석영은 2000년 『오래된 정원』을 출간한 뒤, 한 인터뷰에서 『객지』와 같은 딱딱하고 메마른 리얼리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동아시아적 형식에 현실적 내용을 담고,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아스투리아스 등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참조 할 삼아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겠다⁴⁾고 밝혔고, 그 의도대로 『손님』을 썼다. 그가 의도적으로 밝힌 마술적 리얼리즘이 작품 속에 어떤 형식으로 발현되었느냐, 그리하여 그의 작품 세계를 얼마나 변화, 확장시켰느냐를 그의 소설적 지형도 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전에 작가가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마거릿 드래블과의 현지 대담 중에 나온 『손님』에 대한 영국인 작가의 독회 소감을 보자.

손님을 통해서 반세기 전 일어난 비극과 그로 인해 희생된 무고한 민중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위무하고자 하는 작가정신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한 남미 작가들에 의해 애용된 마술적 리얼리즘의 한국판을 보았다는 것이 제 독후감입니다.⁵⁾

드래블의 지적대로 황석영의 『손님』을 마술적 리얼리즘의 한국판이라 보는 것은 일단 무리가 없다. 2000년대의 황석영은 새로운 문학적 변신의 출구로 동아시아적 형식 속에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 마술적 리얼리즘을 참고하겠다고 피력해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황석영의 소설은 『손님』 이전에 이미

4) 황석영, 『알라딘』, 황석영 저자파일 인터뷰 참고.

5) 황석영, 마거릿 드래블 「한영 대표작가 대담」, 『경향신문』, 2005. 1. 24.

삼십 년 전인 데뷔 시절부터, 굳이 명명하자면, 나름의 ‘한국형 미술적 리얼리즘’을 곳곳에 내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백성의 가없는 뜻을 위해 죽은 자가 그뿐이겠는가. (중략) 폭풍이 몰아치는 날 서낭나무는 동치를 떨고, 내부에서는 구렁이가 꿈틀거리는데 가지에 걸린 매가 날지 못하여 깃을 퍼덕이는 안타까운 여러 밤이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⁶⁾

이 작품은 황해도 진지노귀굿 열두 마당을 기본 열개로 하여 씌어졌다. 여기서는 굿판처럼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등장하고 그들의 회상과 이야기도 제각각이다. 나는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하나의 씨줄과, 등장인물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의 입장과 체험을 통하여 하나의 사건을 모자이크처럼 총체화하는 ‘구전담화’라는 날줄을 서로 엮어서 한쪽의 베를 짜듯 구성하였다.⁷⁾

『손님』은 가르시아 마르케스식 미술적 리얼리즘이라기보다는 황석영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서사성의 주술적 개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미술적 리얼리즘은 라틴 아메리카만의 고유한 서사 양식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문예사에서 미술적 리얼리즘처럼 시대 변천을 겪은 용어도 드물다. 민중 민족문학이 주도하던 1970년대에는 제3세계 문학론의 견지에서, 해체론과 혼성모방이 대두되던 1980년대 후반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류에서, 또 고전적 서사의 구조가 와해되고 있는 최근에는 탈식민주의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술적 리얼리즘은 에밀 로드리게스 모네갈이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의 무분별한 사용의 위험성’을 제기할 정도로 용어의 범주 설정에서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몇 개의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다. 앙헬 플로레스는 카프카의 『변신』과 보르헤스의 『불한당들의 세계사』를 기점(1935)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미술적 리얼리즘’의 작가군을 폭넓게 설정한다. 반면 루이스 레알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그를 둘

6) 황석영, 『장길산』, 창작과비평사, 1984(개정판 2004), p.17.

7) 황석영, 『작가의 말』, 『손님』, 창작과비평사, 2001.

러싸고 있는 세계 사이의 신비스러운 관계를 밝히려는 리얼리즘 문학'으로 규정한다.⁸⁾ 그런데 괴테의 『파우스트』 이후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까지 '근대의 서사시'를 추적한 프랑코 모레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데, 모레티의 관심은 마술적 리얼리즘의 어원과 그것의 추적보다는 근대 문학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체제 읽기에 있다.

프랑코 모레티는 『파우스트』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설명하기 위해 '가족 대하소설'이라는 새로운 서사 장르를 부여한다. 근대의 서사시를 보는 두 가지,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파우스트』의 경우 시간성을 강조하면 세계의 텍스트가 되고, 공간성을 강조할 경우 민족 대하소설이 된다고 설명한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의 경우, 시간성과 공간성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 '비동시대성'을 보여준다고 파악한다. 그는 바로 비동시대성이야말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한 세계로 본다. 그에 따르면, 보통 유럽의 대하 장편소설에서는 두 세대에 걸친 가족의 운명이 교차하는 반면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콘도의 상황은 '확대 가족이자 터무니없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은 부엔디아 가문의 뒤죽박죽인, 뭐라고 규정하기 힘든 시대'⁹⁾ 속에 놓여 있다.

조선 후기 산야를 무대로 삼은 의적들의 삶의 활극을 그린 황석영의 『장길산』과 1950년 황해도 신천양민 대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진지노귀곳 열두마당을 끌어들이 이 땅에 씻을 수 없는 민중의 상처를 남긴 이데올로기(기독교와 맑스주의)를 내용으로 한 『손님』은 프랑코 모레티의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세계 텍스트와 민족 대하소설과 가족 대하소설의 간극은 아주 멀고도 가까워보인다. 모레티는 마술적 리얼리즘은 '마술 같은 현실'에 대한 오역이고, 그 오역이 자리 잡은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의 지적대로 마술적 리얼리즘이 아니라 '마술 같은 현실'의 집단 무의식적 발로, 또는 해원(解冤)이라면 『백년의 고독』이나 『장길산』이나 『손님』의 간극은 거의 없어 보인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에서의 세계, 그 세계로서의 마콘도가 있

8) 김용호, 위의 글, 참조. 우석균, 「라틴아메리카소설의 국제화-또 다른 모더니티의 추구」, 『라틴21』, 2003. 참조.

9) 프랑코 모레티, 『근대의 서사시』,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1. p.366.

듯이, J. 조이스의 『율리시즈』의 세계, 그 세계로서의 더블린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황석영에게는 『손님』에서의 세계, 그 세계로서의 황해도, 곧 한반도가 있는 것이다. 마콘도가 가르시아 마르케스만이 쓸 수 있었던 가상의 마술적(magic) 시공간인 것처럼, 황석영만이 쓸 수 있는 해원의 주술적(shaman) 시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이름으로 황홀하게 조우하기도 한다. 황석영과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리얼리즘을 라틴 아메리카적 마술이나 연금술과 동양적 또는 한국적 주술(무속)으로 섬세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의 소설은 내통하고 마는데 그 근거는, 둘 다 전설이나 구전, 민중의 집단 무의식을 질료로 삼아 이야기꾼으로서의 천부적인 기질을 발휘해왔다는 것이다. 『백년의 고독』의 집필 과정을 고백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육성이 시사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모든 소재와 전체 구조가 준비되었는데 어조가 떠오르지 않더군요. 나 자신이 내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략) 골머리를 썩이다가 우리 할머니께서 터무니없는 일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옛날이야기 투가 제일 그럴듯하다고 확신이 되더군요. 전문적인 관점에서 『백년의 고독』의 본질은 자연스러운 어조에 있지 않을까요.¹⁰⁾

2) 임철우-가르시아 마르케스, 두 ‘백년’의 만남

제목에 ‘백년’이란 시간을 곧바로 가져오고, ‘마콘도’처럼 ‘영도’란 가상의 섬을 설정해서 한국사 백년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형상화한 임철우의 경우를 보자.

섬이 하나 있다.

그림자의 섬, 영도(影島). 그것은 결코 환상도 허구의 이름도 아니다.

반도 서남쪽 영락없는 토끼의 엄지발톱 자리, 서해와 남해가 마주치는 그 접점에 작은 철교 하나만으로 육지와 간신히 이어져 있는 섬. 물이 끝나고

10) 서성철,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읽는 법」, 재인용. 서성철,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묵시적 비전 『백년동안의 고독』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1995, 참조.

물이 시작되는 그 몽롱한 경계에 섬은 거품처럼 홀로 떠 있다. (중략) 그 섬엔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거주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은 ‘아직 살아 있되 실은 벌써 오래전 죽은 자들’ 혹은 ‘이미 오래전 죽었으나 차마 아직 섬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자들’이다. 한사코 섬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혹은 끝끝내 벗어날 수 없는 사로잡힌 영혼--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다.¹¹⁾

이 대목은 임철우의 『백년 여관』의 도입부, 프롤로그이다. 제목이자 소설의 핵심 공간인 ‘백년 여관’이 있는 섬에 대한 소개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소설에서 인물과 사건 전개에 필수적인 공간은, 그것이 가상공간일수록 구체성을 담보로 설득력을 얻는다. 문제는 ‘영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림자이고, 환상이고, 허구를 품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작가는 굳이 이 섬의 실체는 환상도 허구도 아님을 표나게 내세울 수밖에 없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으로 인해 이 섬의 실체야말로 환상과 허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작품 도처에서 펼쳐지는 다음과 같은 장면은 별도의 독법을 요할 수밖에 없다.

백년여관 뒤뜰 수풀에선 아름드리 고목들이 뿌리째 뽑혀 나자빠졌다. 그때 생겨난 커다란 구덩이 속에서 수천 마리의 개구리와 수백 마리의 뱀이 한꺼번에 새까맣게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것들은 한참 동안 여관 뒤뜰과 마당을 점령한 채 어슬렁거리다가, 밤사이 담벼락 틈을 통해 자취를 감추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한겨울인데도 백 년 묵은 뱃나무들이 일제히 가지마다 꽃잎을 피워올렸다.¹²⁾

이 장면은 한 많은 노인네 설분네가 죽자 백년여관에 일어난 기이한 변화에 대한 묘사이다. 「아버지의 땅」, 「사평역」, 「봄날」과 같이 비극적 현대사의 장면들을 다루되 서정성이 강한 임철우의 작품을 읽어온 독자들이라면 위와 같이 마술적 세계관이 빚어낸 듯한 거짓말 같은 문장에 다소 놀랄 만하다.

11) 임철우, 『백년여관』, 한겨레신문사, 2004. p. 9.

12) 임철우, 위의 책, p. 66.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작가의 말」에서 밝힌 3년간의 절필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신적, 육체적 고비를 넘겨야 했다는 작가의 고백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 년 전, 어쩌다 아주 잠깐 죽음의 문턱 저편을 언뜻 훑쳐보고 온 적이 있다. 의식이 흐릿하니 돌아오기 직전, 나는 생과 사의 경계에 드리워진 검은 휘장이 눈앞에서 휘 젓혀지는 것을 목격했다. 사물과 그것의 그림자가 하나이듯, 삶과 죽음이 실은 한 몸체라는 사실. 그 짧은 순간 뇌리를 스쳐간 생각이었다. 그 체험 이후, 시간은 내게 화두가 되었다.¹³⁾

임철우는 20세기 한국 근현대 소설의 중요한 특징인 사머니즘적 체질을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로 승화해온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런 맥락에서, 임철우와 마술적 리얼리즘과의 만남은 세계의 보편적인 소설 독자에게 나아가기 위해 매우 고무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¹⁴⁾ 마술처럼 작가를 사로잡은 시간에 대한 화두는 가상공간의 창조로 이루어지고, 두 백년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마콘도와 필적할 영도를 탄생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막연히 생각해오던, 일종의 연작 형식의 글감이 하나 있긴 했다. 가상의 마을, 지리적으로 고립된 산골의 작은 읍을 무대로, 개성적인 여러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담담한 톤으로 하나씩 그려내고 싶었다. 그 소설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작중무대가 될 가상의 마을이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하지만, 내부에선 무엇인가 용암처럼

13) 임철우, 「작가의 말」, 위의 책, p. 343.

14) 김형중은 임철우의 『백년 여관』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떠올린다. 부엔디아 가문의 시조 호세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의 죽었을 때 내리던 거대한 꽃비와 백년 여관 뒤뜰 구멍에서 쏟아져 나온 수천 마리의 개구리와 뱀의 풍경이 매우 흡사하다고 본다. 나아가 두 작품의 구성과 문체, 수사법 면에서 임철우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술적 리얼리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음을, 한국형 마콘도인 ‘황천’(「칠선녀주」, 아래 각주 참고)과 ‘영도’(『백년 여관』)를 세우고 한창 우리식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탐구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김형중, 「한국형 마콘도들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변장한 유토피아』, 랜덤하우스중앙, 2006. 참조.

불길하게 들끓고 있는 소읍, 당신이 꿈꾸는 공간은 이를테면 윌리엄 포크너의 ‘요크나파토파 타운’ 혹은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마콘도’ 같은 가공의 마을이었다.¹⁵⁾

1980년대 민족문학 진영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리얼리즘을 제3세계의 문학론으로 다루면서 민중의 핍진한 삶을 배제한 식민지 지배 언어를 사용한 엘리트 문학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백년의 고독』을 집필하면서 무엇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겪은 자기 설득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소설이란 단순한 언어의 사용, 또는 표방이나 참고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정신, 하나의 언어, 하나의 기법이 수용되는 과정이 컴퓨터 부품을 끼워 넣거나 갈아 끼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의든 타의든, 이러한 이질적인 정신과의 싸움과 그 체화(體化)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황당한 이야기, 어떤 미술적 현상이라도 작가 자신이 믿는, 그리하여 자연스러운 어조를 본질로 획득하는 데에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만큼이나 다양한 역사와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는 지속적인 관심, 그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해내는 혜안이 관건이다.

2. 김연수, 박형서와 J. L. 보르헤스의 만남

1) 김연수-보르헤스, 원본 찾기로서의 소설 쓰기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지성 사조(思潮)는 모두 보르헤스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제 정설로 통한다.¹⁶⁾ 보르헤스는 한 사람의 작가를 넘어서는 하나의 ‘세계-도서관’으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특질인 ‘혼종성’과 ‘문화 횡단’ 개념에서 ‘정치, 문화, 사회, 과학, 철학 등에 걸쳐’¹⁷⁾ 21세기 현대문화이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15) 임철우, 「칠선녀주」, 『문학-판』, 열림원, 2004. 겨울호. p. 67.

16) 황병하, 작품해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픽션들』, 황병하 옮김, 민음사, 1994, p. 294.

17) 송병선, 작품해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픽션들』, 송병선 옮김, 민음사, 2011, p.229.

1994년 장편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제3회 작가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면서 24세의 젊은 나이로 문단에 등장한 김연수는 1990년대에는 꾸준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품 활동을 보이다가, 2000년 벽두 첫 소설집 『스무살』과 장편소설 『꼴빠이 이상』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는 동시에 한국 소설계의 지형도를 바꿔놓았다. 이 두 작품은 공고롭게도 보르헤스의 소설 기법이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내밀히 투사된 형태로, 이후 펼쳐질 2000년대의 다양한 소설군(群) 중 ‘원본(原本) 찾기로서의 소설 쓰기’라는 독특한 영역을 확보하는 중요한 지점을 형성한다. 보르헤스가 20세기 후반의 소설을 창조했다면, 21세기 초 한국 소설은 보르헤스로부터 자극 받은 김연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김연수는 2000년 출간한 첫 소설집 『스무살』에 수록된 「공야장 도서관 음모 사건」에서 작가의 분신인 ‘나’를 통해 보르헤스의 소설 「바벨의 도서관」¹⁸⁾과 「기억의 천재 푸네스」¹⁹⁾에서 소설의 모티브를 빌어왔음을 내비친다.

나는 기억의 명수 푸네스처럼 보르헤스가 쓴 그 소설을 기억해내고 했다. 그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하지만 내가 쓴 것도 못 알아볼 만큼 눈이 멀어버린 지금, 나는 내가 태어난 육각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죽을 채비를 하고 있다.’

“보르헤스처럼 공야장도 도서관을 지을 공간만 있으면, 세계의 모든 책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글자들의 조합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서가 할 일은 수서 공간을 무한히 쪼개어나가는 일이야.”²⁰⁾

이처럼 김연수의 첫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는 보르헤스적인 요소들이 눈에 띄는데, 첫 번째 모티브는 제목에서 출발한다. 「공야장 도서관 음모 사건」은 보르헤스의 제목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음모’라는 단어인데, 이 소설이 취하고 있는 장르적 특징을 대변한다. 간단하

18)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위의 책, 수록.

19)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위의 책, 수록.

20) 김연수, 「공야장 도서관 음모 사건」, 『스무살』, 문학동네, 2000, p.16.

게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공야장이라는 도서관장(사실 그는 책도둑이다. 어쩌면 ‘책을 유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을 살해한 한 사서의 이야기이다.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어 붙여진 제목이지만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과 「기억의 천재 푸네스」의 주요문장이 차용되어 있다. 곧, ‘도서관’과 ‘푸네스’다. 이들은 김연수의 소설 제목에서 ‘도서관’과 ‘공야장’으로 전환된다. 공야장은 자신이 가진 도서관의 모든 책을 기억하는 천재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면, 이 작품은 「푸네스 도서관 음모 사건」이라 해도 무방하다. 결국 이 소설은 보르헤스 문학에 대한 김연수의 직접적인 현사이기도 하며, 한국 현실에 맞추어 장르적 재미를 더해 다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티브는 우주와 선평기에 있다.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은 ‘우주’라고 부르는 도서관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수 역시 공야장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것을 소설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는 ‘우주’라는 광범위한 단어를 피하고 ‘선평기’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시작한다. 소설은 “책이 가지고 있는 선평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라는 약간의 생뚱맞은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선평기를 유폐시키려는 선평기 발명가이며, 그 선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자인 ‘나’다. 그가 선평기를 유폐시키려는 이유는 후에 밝혀지듯 공야장 선생의 목적과 같다. 자신이 만든 모든 선평기를 유폐시켜야만 선평기를 새로이 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마치, 공야장 선생이 도서관을 열기 전의 행동과 유사하다. 공야장 선생도 자신의 희귀본을 모두 유폐시킨 후에야 도서관을 개관했기 때문이다. 도서관입구에는 거대한 선평기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선평기는 스스로를 회전시켜 바람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존재이며, 이는 마치 ‘도서관의 책들은 팽창을 기다리는 밀반죽과 같은 것이지, 압축을 기다리는 맥주캔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공야장의 ‘도서관’과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공야장 선생은 희귀본 책들을 모두 유폐하고 도서관을 연 「바벨의 도서관」에 언급되는 천재적인 사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천재적인 사서-창조적 인간-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짜는 불완전한 사서-현실적 인간-는 결국 공야장을 살해하고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작가는 마치, 공야장과 사서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듯하다. ‘바람 없는 선평기’, ‘외로운 구입’

같은 중의적 표현이 그것을 대변한다.

김연수는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1994년에서 1997년으로 밝히며, 작가를 휘감았던 불안감이 이 작품들 속에 스며 있음을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보르헤스의 단편들로부터 모티브를 끌어온 소설 쓰기가 단편 「공야장 도서관 음모 사건」에 정직하게 드러나 있다면, 이듬해 발표한 장편 『끝뎀이 이상』은 보르헤스의 창작 기법이 구조적으로 내밀하게 차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친구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공야장 선생이 유폐시켜버렸다는 그 선풍기 수집가에 대한 책이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 그 책보다 잘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자신이 안 생겨.”

“결국 글쟁이들만 없어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책을 쓰는 일이 되겠구만.”
“그렇지도 모르지.”²¹⁾

실제 인물인 이상의 유실된 데드마스크(원본)를 추적해가는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는 장편 『끝뎀이 이상』은 사실 단편 「공야장 도서관 음모 사건」의 마지막 구절이 확대되어, 「허버트 웨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와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와 같은 보르헤스의 원본을 둘러싼 가짜 전기 형식을 본격적으로 차용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은 김연수의 대표작으로 이후 김연수 소설 문학의 만개를 견인하면서 바야흐로 한국 소설계에서 도서관의 책들을 소재로 한 2차 텍스트 생산(소설쓰기)의 장(場)이 풍요롭게 전개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살펴볼 박형서의 작업은 이러한 김연수의 소설 창작 방법론과 어느 정도 겹쳐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2) 박형서-보르헤스, 픽션을 둘러싼 소설 쓰기

보르헤스의 『픽션들』(1944, 1956)이 있고, 그리고 박형서의 『자정의 픽션』(2006)이 있다. 보르헤스는, 아니 박형서는 거짓말(허구, fiction)들을 자

21) 김연수, 「공야장 도서관 음모 사건」, 위의 책. p. 46.

유자재로 사용하고, 쉬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적극 동참하면서 ‘환상적²²⁾ 리얼리티’를 창조한다.

김연수가 보르헤스의 작품을 자신의 창작 기법으로 수용한 것을 작품 안팎에서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면, 박형서는 책 말미에 수록된 「작가의 말」을 통해 『자정의 픽션』의 제목에 사용한 자정에 대한 의미는 비교적 친절하게 기술하면서도 정작 ‘픽션’의 의미는 밝히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자정’이란 가라타니 고진이 그리워하는 ‘요란했던 근대’ 이후의 시간이다. 동시에 서사문학이라는 대가족 안에서 소설이 태동하던, 태아처럼 움크린 채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홀로 자문해보던 근대 이전의 저 먼 ‘새벽’을 의미하기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정’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얇은 꿈을 꾸거나 혹은 잠을 이루지 못해 고단하게 중얼거리는 시간이다.²³⁾

박형서는 1990년대 이후 세계 문학의 질서 속에 열렬하게 추앙되고, 보편화된 보르헤스의 소설(픽션)에 대해 굳이 중언부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보르헤스의 『픽션들』을 먼저 접한 독자라면, 또한 그 안에 수록된 「허버트 케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읽은 독자라면 『자정의 픽션』에서 ‘픽션’이 가리키는 곳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동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가 ‘자정’에 방점을 찍은 것은, 「작가의 말」에서 언급한 대로, 이 소설집이 출간되던 2006년 무렵 한국 문학계에 선고처럼 던져진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22) 보르헤스의 창작 방법론의 요체는 환상성에 있다. 그런데 환상이라는 용어는 작가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보르헤스 소설의 환상성은 헛것(illusion), 또는 환영(幻景)으로서의 허구 인물과 그 인물의 삶의 창조라는 현대 소설이 지향하는 본질과 구별된다. 또한 장르문학의 한 범주인 판타지와도 케를 달리한다. 보르헤스의 환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눈앞에서 보는 듯이 제시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념 세계의 구상화라고 정의된다. 이를 위해 기법적인 차원과 주제적인 차원의 요소가 동원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추리 또는 미로 구조의 측면과 가짜 사실주의, 가짜 참고 문헌, 가짜 전기, 각주 제시 등이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로는 문학론(소설이론)과 형이상학(죽음, 영원 등)이 해당된다. 황병하, 작품해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픽션들』, 민음사, 1994. 참조.

23) 박형서, 「작가의 말」, 위의 책, p.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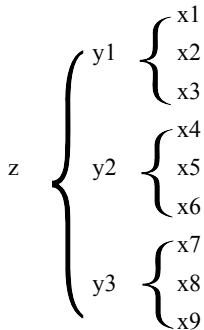
중언론'에 대한 신진 작가로서의 응전(應戰)으로 보인다. 24) 그것은 선고 이전의 '픽션 세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한 구석을 끝까지 탐사해보겠다는 도전장이기도 하다. 픽션이란 무엇인가. 보르헤스에게 그것은 문학론에 대한 연구이고, 패러디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유희이고, 놀이이다. 최초의 것이 최후의 것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최후의 것에서 그 직전, 또는 그 이전 것이 소개되기도 한다. 시간은 순서를 잃고, 사건은 뒤죽박죽 서로 섞이고, 자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한다. 모든 것이 환상이고, 혼종이다. 보르헤스에게 픽션이란,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무한의 그릇 곧 상상의 책이자, 도서관, 곧 우주이다. 또한 보르헤스에게 픽션이란, 거대한 역사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코멘트'이고, 한 문장으로 요약한 사건을 길게 부연 설명하는 각주, 곧 주석이다.

방대한 분량의 책들을 쓰는 행위, 그러니까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을 장장 오백여 페이지에 걸쳐 길게 늘리는 것은 고되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신나간 짓이다. 이미 이러한 책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것들에 관한 요약, 즉 논평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중략) 그런 작품들 역시 책이라는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중언부언한다. 더 분별력이 있고, 더 요령 없고, 더 게으른 나는 가상의 책 위에 주석을 쓰는 편을 택했다. (중략) 「틀린,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와 「허버트 퀘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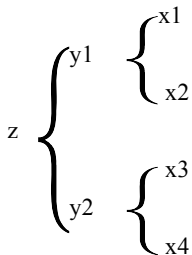
24)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중언'이란 한 마디로 '문학은 죽었다!'는 문학에 내리건 사형 선고이다. 고진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그에게 확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한국문학, 그것도 소설임을 밝혔다. 그는 '문학은 끝났지만 소설은 계속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소설은 계속 씌어지고 읽히되, 더 이상 이전의 소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상상력으로 떠받들던 영향력 있는 소설'이 아닌, 재미를 담지한 오락적 상품의 의미를 지닌다고 피력했다. 고진의 중언론은 막 출발선상에 있는 한국의 신진 소설가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치열한 성찰과 전망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중언』,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06, 참조.

25)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서문」, 위의 책, 송병선 옮김, p. 10.

문학론에 대한 패러디, 그리고 주식 행위로서의 픽션. 박형서의 『자정의 픽션』에 수록된 단편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음란성 연구」는 보르헤스의 『픽션』들에 수록된 단편 「허버트 퀘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1차적으로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문학론을 근거로 논문 쓰기를 창작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때 작품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은 원본(작품)으로부터 2차적인 창작을 수행 과정에 획득해야 하는 논리성이다. 박형서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 실험으로 보르헤스의 「허버트 퀘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 구현한 도표와 가짜 주석을 적극 활용한다. 우선, 「허버트 퀘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에 사용된 도표를 보자.



[표 1] ²⁶⁾



[표 2] ²⁷⁾

26)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위의 책, 송병선 옮김, p. 93.

언뜻, 수학 공식처럼 보이는 이 도표는 보르헤스가 소설의 소재로 삼고 있는 허버트 퀘인의 작품집 『에이프릴 마치』의 구성을 심층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다. 이 작품집은 ‘전체 아홉 개의 소설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중 어떤 것은 상징적, 어떤 것은 초자연적, 어떤 것은 탐정소설적, 어떤 것은 심리적, 어떤 것은 공산주의적, 어떤 것은 반공산주의적 등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화자는 ‘이 도표야 말로 이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고 제시한다. 이 도표의 기능과 효과를 확인하고 공감한 박형서는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음란성 연구」에서 작품의 주제(곧 음란성)를 보다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도표화 작업을 수행한다.

외할머니	어머니	옥희					
	외할머니	어머니	옥희Ⅱ				
		외할머니	어머니	옥희Ⅲ			
			외할머니	어머니	옥희Ⅳ		
				외할머니	어머니	옥희Ⅴ	
							∞

[표 1] 28)

표면적 사건	심층적 의미
어머니가 사랑손님에게 달걀을 줌	사랑손님에게 정액의 생산과 사출을 요구함
사랑손님이 자신의 달걀을 옥희에게 줌	사랑손님이 옥희에게 정액을 발사함

[표 2] 29)

27)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위의 책, p. 94.

28) 박형서, 위의 책, p. 157.

29) 박형서, 위의 책, p. 161.

이러한 도표 행위를 통해 작가의 창작 의도, 곧 작품의 주제인 ‘단순한 성장기 소설이 아니라 성교를 중심으로 세계의 원리와 끝없는 갱신을 해명하고자 한 알레고리 소설’³⁰⁾로서의 정체성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보르헤스의 ‘환상적 리얼리즘’의 여러 기법들 중의 하나인 가짜주석은 전혀 실존하지 않는 작품의 주석을 달아 마치 실존하고 있는 작품처럼 만드는 기법이다. 박형서 소설에 달린 모든 것이 가짜 주석은 아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음란성 연구」의 경우, 알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각주가 제시되고, 그것을 통해 유진용의 『알의 기원』을 끌어와 이야기를 전개한다.³¹⁾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주석의 마지막 문장인 ‘나도 지긋하신 분이 왜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대목이다. 이 마지막 한 문장은 그때까지 진행된 앞의 주석, 그러니까 서사 내용을 무력화시키며 현재의 주석을 의심하게 만드는 반전의 여지를 내장하고 있다. 이처럼 박형서의 소설에서 목격되는 작가의 능청과 유머는 보르헤스의 가짜주석이 내포하고 있는 작가의 그것과 등가이다. 논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도표의 사용 역시 자신의 글이 ‘논문’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도표와 주석은 모두 소설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 실험이다. 보르헤스가 ‘나는 상상의 책 위에 씌어진 주석으로서의 글쓰기를 선호했다’라고 단언하듯 주석은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는 픽션의 중요한 요소로 거듭나고 있다.

박형서 또 다른 단편 「논쟁의 기술」의 마지막 장면 역시 보르헤스의 단편 「끝」³²⁾의 장면과 매우 흡사하게 겹쳐져 있다. 보르헤스의 「끝」은 아르헨티나의 낭만주의 시인 호세 에르난데스의 서사시 『마르틴 피에로』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르헤스 창작 방법론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상호 텍스트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³³⁾ 이야기는 두 교수 간의 지적인 대화에서 시작되는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대결 구도를 띠게 되고, 결국은 논쟁으로 치닫는다. 작가는 ‘자기 영역으로의 초대, 유리한 주제의 선정, 은근히 겁주기, 무시하기, 알

30) 박형서, 위의 책, p. 164.

31) 박형서, 위의 책, p. 148. 주석15) 참고.

32)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끝」, 위의 책, 송병선 옮김, 민음사, 1994.

33)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끝」, 위의 책, 황병하 옮김, pp. 257-258. 각주 15) 참조.

밧게 웃기, 말 돌리기와 문단법, 상대가 모르는 예를 들기, 정신없이 들이대기, 말허리 자르기, 반말하기, 몰아세우기, 괴상한 어법, 판청 부리기, 막나가기, 서둘러 결론 내리기, 마지막 수단'이라는 소재목으로 나누어 대화를 진행시킨다. 여기에서 보르헤스적인 표지(標識)가 발견되는 곳은 마지막 장면이다. 화자인 '나'는 논쟁 끝에 동아시아 전통 장검으로 현교수를 베어버리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현교수의 목을 '나' 대신 칼의 주인인 '말 탄 사람'이 나타나서 베어버리는 것이다. 작품을 환상적인 종말로 이끌고 있는 이 장면은 '말 탄 사람'과 흑인과의 칼싸움이 묘사되는 보르헤스의 「끝」과 겹쳐진다.

마지막 햇빛을 받고 있는 평원은 마치 꿈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추상적이었다. 지평선에서 점 하나가 떠올거리더니 차츰 커져서 마침내 집 쪽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오는, 혹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레카바렌은 그가 넓은 모자와 어두운 빛깔의 판초, 그릭 흑백 얼룩무늬 말을 보았지만, 말에 탄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마침내 말 탄 사람은 고삐를 당기고서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다가왔다. 그가 약 이백 야드 앞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레카바렌은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말에서 내리고, 말을 전봇대에 묶고, 뚜벅뚜벅 걸어서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중략) 그들은 뒤엎겨 싸웠고, 날카로운 칼날이 검둥이의 얼굴에 자국을 새겼다. (중략) 한 차례 공격을 받자, 검둥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뎠고, 적의 얼굴에 칼을 내리치는 척했다. 그런 다음 칼을 깊이 내질렀고, 그 칼은 배 속으로 파고들었다. (중략) 이제 그에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는 이미 한 사람을 죽였던 것이다.³⁴⁾

아까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던, 시멘트 바닥을 내딛는 말발굽 소리는 더욱 커졌다. 마치 여구실 문 바로 너머에 거대한 한 마리 말이 콧바람을 쉴씩 내뿜으며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극도의 절망에 휩싸인 나머지 현교수의 눈을 이면하기 위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중략) 그 순간 엄청난 굉음을 내며 연구실 문이 박살났다. (중략) 거기에는 진한 밤색의 엄청난 나게 커다란 말이 서 있었다. 코에서는 허연 김이 쉼 없이 뿜어져 나왔다. 바로 말발굽 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중략) 사내는 마지막으로 고함을 한번

34)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위의 글, 위의 책, 송병선 옮김, pp. 207-210.

지르더니, 서까래 같은 발로 말의 옆구리를 차고는 앞으로 나아가며 창을 크게 휘둘렀다. 쉬악, 빛까지 잘려나갈 듯한 소리가 지나간 후 현교수의 상체는 천천히 옆으로 흘러내렸다.³⁵⁾

살인의 주체가 누구인지, 두 작품에서는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추정의 결과는 ‘나’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논쟁에서 승리한 것인지 패배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형서의 소설은 보르헤스의 소설을 매개로 자유롭게 겹쳐지고 펼쳐지면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석영, 임철우가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한 상징인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매직 리얼리즘을 서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용했다면, 김연수와 박형서는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또 다른 상징인 보르헤스의 환상적 리얼리즘을 서사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차용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보르헤스의 창작 방법론을 근간으로 출발한 김연수와 박형서는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들의 작품에 겹쳐 나타나는 보르헤스적인 특징은 이후 더욱 독창적인 문법을 창조해 나가며 세계 문학의 보편적인 흐름 속에 공명할 것이다.

III. 결론

이상으로 본고는 2000년대 한국 소설계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경향을 황석영과 임철우, 김연수, 박형서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현재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점검해보았다. 21세기의 우리는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대륙 마다 인간의 삶이 하나로 통일되는 새로운 문명권에 살고 있다. 오랫동안 세계 문학사를 지배했던 서구의 유파나 담론은 경계를 잃은 지 오래다. 인간의 삶의 면면을 씬 없이 담아온 소설은 때로는 경계를 지우고, 또 때로는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의 삶에 유입되어

35) 박형서, 위의 책, pp. 46-48.

결핍되었던 부분을 채우며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은 이후 한국의 소설들과 더욱 과감히 동거하며 세계 문학의 흐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참 고 문 헌

기본 자료

- 김연수, 『스무살』, 문학동네, 2000.
 _____, 『끝뎀이 이상』, 문학동네, 2001.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 동안의 고독』, 안정호 옮김, 문학사상사, 1977.
 _____, 『백년의 고독』, 조구호 옮김, 민음사, 2000.
 박형서,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문학과지성사, 2003.
 _____, 『자정의 픽션』, 문학과지성사, 2006.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렙』, 황병하 옮김, 민음사, 1996.
 _____, 『픽션들』, 황병하 옮김, 민음사, 1994.
 _____, 송병선 옮김, 민음사, 2011.
 _____, 『불한당들의 세계사』, 황병하 옮김, 민음사, 1994.
 임철우, 『백년여관』, 한겨레신문사, 2004.
 _____, 「칠선녀주」, 『문학관』, 2004, 겨울.
 황석영, 『손님』, 창작과비평사, 2001.

참고 자료

-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06.
 김용호, 「한국 문학 속의 마술적 사실주의」, 『라틴아메리카연구』, 14(2), 2001.
 김형중, 「한국형 마콘도들에 관한 몇 가지 단상」, 『변장한 유토피아』, 2006.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세상종말전쟁』(전2권), 김현철 옮김, 새물결, 2003.
 박병규, 「마술적 사실주의 : 마술적 사실주의: 문화적 자의식과 문화적 지형도」, 『라틴아메리카연구』, 2001.

- 서성철,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목시적 비전 『백년동안의 고독』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1995.
- _____,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읽는 법」-『백년의 고독』을 중심으로, 『라틴21』, 2005.
- 송병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 소설적 삶과 삶속의 소설」, 『외국문학』, 1993. 11.
- _____, 「보르헤스 작품의 서술 전략과 그 기능」, 『西語西文研究』, 1999.
- _____, 「환희의 경험과 그 변화」, 『西語西文研究』, 2001.
- _____, 『‘봄소설’을 넘어서-현대라틴아메리카 소설의 흐름과 연구방법3』,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 우석균, 「흑백 사진 속에 갇힌 보르헤스의 천연색 욕망」, 『세계의문학』, 1999. 8.
- _____, 「라틴아메리카소설의 국제화-또 다른 모더니티의 추구」, 『라틴21』, 2003.
- 이만교, 『머꼬네 집에 놀러 올래』, 문학동네, 2001.
- 조 현, 「종이 냅킨에 대한 우아한 철학」, 『동아일보』, 2008. 1. 1.
- _____,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의 역사』, 민음사. 2011.
- 천명관, 『고래』, 문학동네, 2004.
- 프랑코 모레티, 『근대의 서사시』,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1.
- 함정임, 「한국 소설과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황홀한 만남」, 한중남미협력포럼, 코엑스, 2005, 9.
- _____, 「가까이 혹은 멀리에서-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 있는 정원」3호, 『Trans Latin』,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08.7.
- _____, 「Overlapping and Spreading」, 2008 Peru-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Literature and Culture」, Lima, Peru, 2008. 8.
- 황병하, 「환상문학과 한국문학」, 『세계의문학』, 1997, 여름.
- 황석영·마거릿 드래블, 「한영 대표작가 대담」, 경향신문, 2005. 1. 24.
- <http://www.latin21.com>, 라틴아메리카문학21, 2011. 11. 10. 현재.
- <http://translatin.snu.ac.kr>, 웹진 『Trans Latin』,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1. 11. 10. 현재.

❖ ABSTRACT

A tendency of Korean contemporary fictions according to
Latin American fictions

- Focus on the novels of Seok-yeong HWANG, Cheol-woo IM,
Yeon-soo KIM, Hyeong-seo PARK

HAM, Jeung-Im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unfold Latin American trends overlapping with Korean contemporary novels as an interesting scene in the circle of Korea literature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is study was conducted largely in two directions. One is examining how long novel *A Guest* of Seok-yeong HWANG, a representative realist writer in Korea, and another long novel *One Hundred Years Motel* (*Baeknyeon Motel*) of Cheol-woo IM, a writer who has expressed Korean shamanic flowering as his fictitious characteristic since the 1980s, meet and interact with the world of magic realism in long novel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of G. G. Marquez born in Colombia, Latin America, and the other is discussing the fictional techniques of H. L. Borges overlapping with short stories in novel collections *The Age of Twenty* and *Fictions of Midnight* by, respectively, young writers Yeon-soo KIM and PARK Hyeong-seo who displayed a unique world of fictions in the 2000s. For these purposes, we developed the points of discuss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meeting of two essences’ for Seok-yeong HWANG and Marquez, of ‘the meeting of two ‘hundred years’” for Cheol-woo IM and Marquez, of ‘novel writing as the finding of the original’ for Yeon-soo KIM and Borges, and of ‘novel writing surrounding fictions’ for Hyeong-seo PARK and Borges.

Around 2000, the trend of Latin American novels emerged as a phenomenon in Korean novels. It was probably a natural consequence of contemporary writers’ struggling with genres and post-genres, the overturn of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and blurred boundaries. Seok-yeong HWANG, Cheol-woo IM, Yeon-soo KIM, and PARK Hyeong-seo borrowed the contents and techniques

of Latin American novels, but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on how continuously their works internalized the characteristic properties of Marquez-style, Borges-style or polyphonic Latin American novels and, by doing so, how much they expanded or determined their own line. This is why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productively out of vital importance.

In every age throughout history, there have been the phenomena of encountering and sympathizing, and overlapping and spreading with foreign nove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lluminated the aspects of Korean contemporary novels in the flow of world literature through tracing the origin and reality of the trend of Latin American novels emerging conspicuously through overlapping particularly with Korean novels published in the 2000s.

Key Words

라틴아메리카 소설, 가르브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픽션, 창작 방법론, 마술적 사실주의, 환상, 황석영, 임철우, 김연수, 박형서
Latin American, magic realism, Korean shamanic flowering, fictional techniques, fantasy, original, overlapping, spreading

논문접수일: 2011. 10. 18.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